

칼 휘두르는 폭도 제압한 반백의 의사 '정의용사'로

— 백산시병원 의사 단국제, 올 1분기 전국 '정의용사' 명단에



▲ 2024년 1분기 정의용사 명단에 입선한 단국제

백주에 병원에서 칼을 휘두르는 폭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반백을 넘긴 길림성의 한 평범한 의사가 중앙정법위원회가 선정한 '정의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세간의 칭송을 받고 있다.

4월 2일, 중앙정법위원회는 복경에서 2024년 1분기 정의용사 명단(见义勇为勇士榜)을 발표했다. 네티즌 관심도와 각지, 각 단위의 선발 및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55명 정의용사가 영광스럽게 명단에 오른 가운데 단국제의사가 길림성에서는 유일하게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에 돌아간 단국제는 병원의 입원청사 1층 계단실에 들어가려던 중 좁은 계단실 안에서 두 남성과 한 중년 여성이 바닥에 뒤엎겨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국제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심해! 칼이 있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국제가 자세히 보니 세 사람중 검은 옷을 입은 한 중년 남

1972년 2월생인 단국제(单国际, 남, 한족)는 백산시중심병원 의사이다.

지난 1월 24일 12시경,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근무 차 백산시중심병

성이 칼날이 10센치미터가량 되는 접이식 칼로 짙은 남색 패딩을 입은 남성을 반복적으로 찌르고 있었다. 칼에 찔린 남성은 칼을 든 흉악범의 두 손을 꼭 잡고 그의 미친 듯한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 단국제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용감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가해자의 팔을 껴안고 날카로운 칼을 극력 피하면서 칼을 잡은 가해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단국제는 성공적으로 칼을 빼앗은 후 더 이어질 잔도질을 막기 위해 피해 남성과 함께 몸으로 가해자를 바닥에 누르고 있었다.

그때 병원에 일보러 왔던 한 경찰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합세하여 가해자를 제압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킨 단국제는 병원의 경비원을 불러 방폭 강철 포크(钢叉)로 가해자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뒤이어 현장에 달려온 파출소 경찰들이 가해자를 공안기관으로 압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했다. 칼에 5곳이나 찔린 부상자는 제때에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단국제는 실제 행동으로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전승하고 선양했으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했다. 지난 2월 27일, 칼을 든 흉악범을 제압한 단국제는 정의용사로 인정받았고 이를 후 백산시공안국은 단국제를 위문하고 장려했다.

/유경봉기자, 설소희(薛小辉)



앞차에 튕긴 돌에 뒤차 우리가 깨진 책임은 누가 지는가?

두 차가 운행중 돌 하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앞차는 과실이 없고 뒤차는 돌에 맞아 앞 유리가 깨졌다. 그렇다면 이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을 개정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했다.

2023년 7월, 임모가 고용한 화물차 운전수 우모는 차를 몰고 연길에서 왕청으로 가던 도중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뒤따라오던 려객운수회사의 버스 앞 유리를 파손시켰다. 사고 발생후 버스 운전수 위모는 차량 수리비로 2,000원을 지불했다. 려객운수회사는 배상을 받기 위해 임모, 우모 그리고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차량 수리비와 운행정지 손실비 포함 2,5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모가 운전한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려객운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는 교통외사고에 속하며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없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전부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쌍방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강제보험 보험회사가 강제보험 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초과한 부분은 권리 침해자가 배상한다. 려객운수회사가 제정한 유리 수리 명수중에 의하면 유리 비용 2,000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교통강제보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려객운수회사가 입은 운행 정지 손실은 교통강제보험의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화물자동차 주인 임모와 려객운수회사가 각각 50%의 비례에 따라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려객운수회사에 배상금 2,000원을 지불하고 임모가 려객운수회사에 2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후 쌍방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리전기자



'HPV 백신 예약' 사기극 조심하세요!

HPV 백신은 주요하게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량이 많아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에 예약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범죄자들은 예약 경로를 찾는 사람들을 노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과 예약 문자를 통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강소 양주의 시만 오너사는 모 백신 대리예약 플랫폼의 문자를 받았다. 전에 이 플랫폼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한 적이 있기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너사는 당시 다른 경로를 통해 접종을 완료했지만 원래 이 백신이 늘 부족되고 예약이 어려운 터라 이 명액을 녀동생에게 양보하려 했다. 오너사의 동생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이른바 백신 대리예약 플랫폼에 로그인했다. 그녀는 고객센터 일군과 예약 접종 절차를 상의하고 개인정보 기입을 완료했다. 그 후 상대방은 개인 은행계좌번호를 보내와 5,800원을 지불하면 성공적으로 명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오너사의 동생은 요구에 따라 인츰 돈을 지불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입한 정보 오류로 결제가 무효로 되었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에 그녀는 의심이 들어 계좌이체를 계속하지 않았다. 해당 예약 플랫폼의 공식 문의전화를 검색해 연락한 결과 "해당 플랫폼은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고객

에게 개인 은행계좌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제서야 오너사와 그의 동생은 로그인한 것이 가짜 인터넷 사이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신고했다.

사건담당자의 조사 결과 이 합정 뒤에는 랑모, 왕모를 선두로 한 사기 집단이 숨어있었다. 이들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블랙레이아웃 플랫폼에서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랑모가 공식 예약사이트 고객센터 스터터로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발송했다.

사건담당자에 따르면 랑모와 왕모가 문자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예약된 사기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사기문자에 있는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그들이 고용한 공범들이 플랫폼 고액서비스센터 인원으로 사칭해 가격 조정, 재주문 혜택, 결제 오류 시 재지불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2023년 12월, 랑모와 왕모는 사기죄와 공민개인정보침해죄로 각각 유기징역 12년, 유기징역 11년 9개월에 부동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외 고객센터 인원으로 사칭하고 은행카드를 제공해 '돈세탁'을 벌인 여러명의 공범들도 재판을 받았다. /인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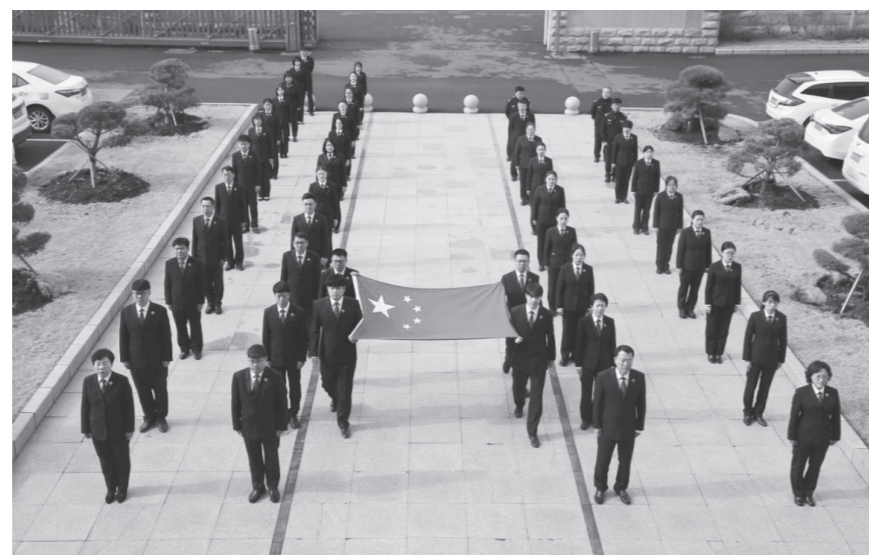
룡정시검찰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주제당일 활동 펼쳐

최근, 룡정시인민검찰원은 민족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락착하고 고락을 같이하고 영육을 같이하며 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다지기' 주제당일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 당일 룡정시검찰원의 검찰 간부와 경찰들은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고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을 방문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사업 경험과 방법을 학습했다.

이른아침, 젊은 검찰 간부와 경찰들은 정연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국기 게양식을 진행했다. 경건하고 장엄한 <의용군행진곡>과 함께 오성붉은기가 천천히 게양되면서 바람에 나뭇겼다. 전체 검찰 간부와 경찰들은 검찰 제복과 휘장을 착용하고 숙연하면서도 총만된 모습으로 국기를 향해 목례했다.

국기 게양식에 이어 전체 검찰인원



들은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을 방문했다. 사회구역 당군(党群) 봉사중심 대청에서 단영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 왕숙청은 검찰일군들을 이끌고 입당선서문을 되새겼다.

사회구역 사업일군의 안내하에 검찰 간부와 경찰들은 사진게시판을 전

람하고 사회구역에서 자체로 만든 노래 <중화민족은 한가족>을 경청하고 함께 노래 <오성붉은기 바람에 휘날리네>를 불렀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그들은 연변 여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공동으로 단결분투한 력사와 풍토인정에 대해 료해하고 중화

민족은 다원일체의 위대한 민족이라는 깊은 뜻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어 제2검찰부 민사검찰관이 전민국가안전교육일 설립의 의의로부터 출발하고 전형적인 사례와 결합해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에게 정치안전, 군사안전, 인터넷안전, 생활안전 등 국가안전 법률지식을 해석하여 주민들이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강화하고 중대 위험 방지 및 해소 의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간부와 경찰들은 이번 주제당일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교육적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업무에서 당건설을 선도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제반 검찰사업에 융합시켜 초심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룡정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리전기자 /사진 룡정시인민검찰원



低碳生活 节能环保

